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STATION JIM

가제 : 기차역 강아지, 짐

저자 : Louis de Bernières (저자), Emma Chichester Clark (삽화가)

출판사: Harvill Secker

발행일: 2019년 11월 7일

분량 : 144 페이지

장르 : 문학 / 8세 이상



**\* 한 강아지와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아름다운 일러스트가 어우러진 한 편의 크리스마스 동화 같은 이야기.**

아직 모든 열차들이 증기를 동력으로 삼아 달리고 있던 어느 가을, 한 철도 요원 레그혼은 열차 객실에 홀로 버려진 한 강아지를 만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그 강아지를 데려온 그는 그 어린 생명체를 오래도록 데리고 있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다섯 아이들은 그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과연 이 작은 녀석은 레그혼씨네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늘 단정하게 철도원 유니폼을 차려 입고 다니던 레그혼은 대머리에 큰 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점점 흰색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 중인 독특한 그의 머리 색 때문에 'Ginger (생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철도원으로서 그의 마지막 일과는 기차 안에 승객들이 훑 놓고 간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리는 것을 깜빡 하고 잠들어 있는 승객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하는 것이었다. 우연치 않게 강아지를 만나게 된 그날 역시 레그혼은 마지막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승객들이 객실에 주로 남기고 가는 물건들 중에는 우산 외에도 아코디언이나 주전자 같은 특이한 물품들도 있었고 한 번은 죽은 사람을 발견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객실에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한 것은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미 집에 고양이 한 마리와 그 고양이와 한바탕 큰 싸움을 벌였던 경주용 비둘기들이 있었지만 그는 그닥 동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아지의 등장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그는 평생 개와 가깝게 지낸 적이 없는데다 그의 아내 몰리 역시 개보다는 고양이를 훨씬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달리 방도를 찾지 못한 레그혼은 이렇게 그 가여운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가 부엌에 그 작은 동물을 내려 놓자 아내 몰리가 키우는 고양이인 킬도가 다가오더니 잔뜩 성난 몸짓으로 강아지의 코를 매섭게 핥켜었다. 몰리 역시 갑작스럽게 찾아온 강아지를 보고 놀란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미 고양이가 있는 집에 비둘기를 데려왔다가 큰 사단을 겪은 적이 있었던 터라 몰리는

고양이와 개가 한 집에서 사는 일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리는 잠시만 그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가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이들이 금방 강아지에 정을 주게 될까 봐 내심 걱정하는 눈치였다. 레그혼에게는 알피, 아서, 베릴, 시시, 앨버트 이렇게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똑 닮은데다가 휴일이면 부모님이 모르는 어딘가로 쫓르르 함께 사라지곤 했고 산으로 들로 토끼 굴로 한참 쏘다니다 배꼽 시계가 울리면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저녁식사 시간에 맞춰 돌아온 아이들은 털도를 피해 식탁 밑에 숨어있는 강아지를 발견했고 자기들끼리 강아지 이야기를 하느라 야단법석이었다. 하지만 레그혼은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그 강아지는 언젠가 주인을 찾아 돌아가야 할 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분실물 센터에 강아지를 찾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레그혼은 어떻게 해야 이 강아지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강아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토록 간절히 강아지의 보호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레그혼은 그 강아지가 너무 좋았다. 다만, 아이가 다섯인데다 비둘기와 고양이까지 키우고 있는 그의 집에 그 강아지까지 식구로 맞기엔 그의 어깨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을 뿐이다. 레그혼은 결국 강아지를 다른 곳으로 서둘러 입양 보내기 위해 맞춤형이 하나도 맞지 않는 강아지 입양 공고문을 써서 우체국 게시판에 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 베릴과 시시는 우체국을 지나 던 중 아빠가 쓴 그 공고문을 보았고 우체국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후 그 공고문을 떼는 데 성공했다. 베릴과 시시는 그 공고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다가 집에 있는 형제들과 다수결을 통해 그 종이를 종이배를 만들어 강물로 띄워 보냈다. 아이들이 아빠가 자신들의 반란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이 이 어린 강아지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고 ‘짐’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다. 짐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뛰어올라가 얼굴 핏아 댔고 추운 저녁이면 품을 파고 들어 온기를 더했다. 자라면서 점점 천방지축 기질을 드러내기 시작한 짐은 여기 저기에 똥을 싸고 집안에서도 큰소리로 짖으며 사방을 어지럽히고 다녔고 식구들이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당장 달려가 사람들이 관심을 거둘 때까지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레그혼은 이 말썽꾸러기 짐의 귀 뒤에서 나는 토스트 냄새 같은 체취를 맡으며 행복해할 정도로 이 강아지를 사랑하게 되었다.

짐의 이야기는 영국 버크셔 지역의 한 기차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짐은 어느 크리스마스 즈음 캐롤을 부르는 아이들과 함께 목에 상자를 걸고 역 근처로 나가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 짐은 곧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이 소식은 당시 왕에게까지 전해졌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까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루이스 드 베르니에르 (Louis de Bernières)는 1995 년 커먼 웰스 작가상 (Corporeality Writers 'Prize) 수상작인 『Captain Corelli's Mandolin』의 저자이다. 그의 최근 작으로는 『The Dust That Falls From Dreams』, 『Birds Without Wings』 등이 있다.

제목 : I CAN MAKE THIS PROMISE

가제 : 그 약속 꼭 지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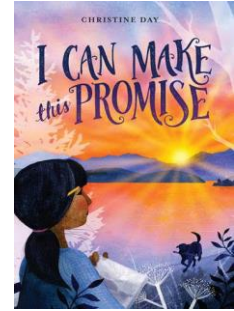
저자 : Christine Day

출판사: Heartdrum

발행일: 2019년 10월 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문학 / 9-12세



**\* “정체성과 입양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하는 책. 또한 뛰어난 통찰력으로 아메리카 원주민 가족들의 분열에 대해 다룬 소설.” - 「커커스 리뷰」**

열두 살 소녀 이디스는 어느 새부터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피부색과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디스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자신 역시 어느 정도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손인 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디스는 집에 놀러 온 친구들과 다락방에 숨겨져 있던 한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뿌리와 가족에 얽힌 이야기들을 파헤치기로 한다.

유치원에 가기 전까진 이디스는 단 한번도 자기 자신이 남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등원 첫날, 이디스는 서로 장난치며 깔깔거리기 바쁜 또래 친구들 틈에서 자신만이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두커니 홀로 있는 이디스를 유치원 선생님이 발견했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디스에게 이것저것을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린 이디스에게 어디서 왔냐는 선생님의 질문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디스는 처음엔 당연히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 이름인 ‘시애틀’이라고 그 질문에 답했지만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디스에게 ‘원래 출신’이 어디냐는 이상한 질문을 했다. 이디스는 처음엔 그 질문이 대체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디스는 이 사건 이후, 점차 이런 질문들에 익숙해져 갈 수밖에 없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손인 엄마와 백인 아버지를 둔 이디스는 자신의 피부색깔 때문에 늘 이처럼 바보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디스의 엄마가 아시아인도 흑인도 아닌 무려 아메리카 원주민의 피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디스에게 어느 족 출신인지부터 시작해 버팔로 고기는 어떤 맛인지, 이디스의 피 중 몇 퍼센테이지가 원주민의 피에 해당하는지와 같은 어이 없는 질문들까지 퍼부었다. 이디스는 여러 번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원주민들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이디스의 엄마조차 한 한 백인 가족에게 입양 되어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7월의 4일 미국의 독립 기념일, 이디스는 독립 기념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된 구역인 한 캠프장에 가서 실컷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이디스는 그곳에서 길을 잃고 돌아다니고 있는 커다란 개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이디스는 그가 너무 귀여운 나머지

지 쓰다듬어주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말리는 바람에 그 개를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떠나와야 했다. 이디스의 마음 한구석 어딘가를 건드린 건 비단 그 개뿐만은 아니었다. 개와 작별 인사를 하고 불꽃놀이를 하던 중 이디스는 우연히 ‘로저’라는 한 소년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이디스를 보더니 대뜸 혹시 이디스가 원주민 출신인지 물었다. 이디스는 그의 질문이 여태껏 자기가 받아왔던 슬한 질문의 뉘앙스와는 어쩐지 좀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디스는 그 낯선 소년이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기분마저 들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디스는 잠시 그 소년의 존재를 잊었고 대신 아까 만났던 그 개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디스는 그 개가 과연 잃어버린 보호자를 다시 만났을지 궁금해졌다. 그 순간 이디스의 머리 속에는 그 개와 관련된 일련의 장면들이 스쳐갔고 그 개를 주제로 아멜리아와 세레티니와 함께 곧 다가오는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할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멜리아의 집에 모인 세 친구는 이디스가 생각해낸 개의 이야기와 여러 다른 영화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했지만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고 머리도 식힐 겸 이디스의 집으로 가서 함께 팝시클을 만들어 먹기로 했다. 집에 도착한 이디스는 친구들과 함께 팝시클 틀이 있을지도 모르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어둡고 후덥지근한 그 다락방에는 오래된 컴퓨터 모니터, 판지 상자등 여러 잡동사니들이 널려있었다. 세 소녀들은 다락방에 온 목적을 잠시 잊고 진기한 물건들을 둘러보느라 각자 그 좁은 방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뭔가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세레티니가 급하게 이디스를 불렀다. 그리고 이디스는 세레티니가 발견한 그 상자에서 자신과 똑 닮은 얼굴을 가진 한 여자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사진 속 그 여자는 분명 이디스가 모르는 사람이긴 했지만 어딘가 너무나 친숙한 모습이기도 했다. 나머지 두 친구들 역시 그녀가 이디스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에 놀랐고 사진의 스타일과 상자에 담긴 우편물들에 적힌 주소로 추정해 보았을 때 분명 캘리포니아 지역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이디스는 이어 그 편지들을 찬찬히 읽어보았다. 그 중 한 편지는 1973년 12월에 쓰인 편지로 놀랍게도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이디스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디스와 친구들은 사진과 우편물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분명 이디스의 부모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사실 ‘이디스’라는 이름은 요즘 시대에 그리 세련된 이름도, 흔한 이름도 아니었고 이디스는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친척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디스는 대체 부모님이 자신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왜 여태껏 자신의 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이 미스터리한 여성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 준 적이 없는 지 궁금해졌다. 이디스는 과연 그 여성의 정체와 자신의 이름에 얽힌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을까? 한 소녀가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벌어지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이다.

#### <저자 소개>

크리스틴 데이(Christine Day)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 중 하나인 코스트 살리시(Coast Salish)의 문화 연구를 주제로 석사 학위를 수료한바 있다. 이 책은 그녀의 첫 소설이다.